

## 예수님의 대심판에 대한 비유

깨어 있을 것을 가르치시는 비유

24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23장 끝에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주님의 재림에 관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재림에 앞서 재림이 임박했음을 나타내 주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제자들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어느 때인 줄을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 있어 예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1-4에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앎이라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라고 쓰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깨어 있어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25장에서 몇 개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들의 강조점은 모두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모르니 깨어 있어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날을 미리 준비하지 못할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 어린 양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들어 갈 수 없게 됩니다.

열 처녀 비유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잠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라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 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라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어 주어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25:1-13)

우선 유의해서 관찰해야 할 점은 이 비유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비하라고 권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날과 시를 알지 못하므로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해석에 관한 문제인데 이 열 처녀 비유에 대한 해석은 무척 여러 가지입니다. 이 다양한 해석들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비유에 대해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비유에서 열 처녀는 전체 교회에 해당하며, 따라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계에는 광대한 교회 조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작게 심겨졌지만 자라고 커져서 큰 가지들을 내고 공중의 새들이 여러 교회의 가지에 깃들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새들은 아주 좋지 못한 새들입니다. 오늘날 전세계의 교회들을 바라볼 때 많은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29-30에서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많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표현되고 있는 불신앙과 회의를 한번 보십시오.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불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불신, 죄 사함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면서도 그들은 스스로를 목회자라고 부르며, 주요한 교과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온갖 불경한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교리들 중에는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들이 많은데, 복음주의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과 혼합된 교회는 아주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을 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듭났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듭나지도 않은 채로 교회의 일원으로 활약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교회들에게 선포하신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즉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회개하라”는 경고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저들에게 속히 임하셔서 저들을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불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로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불행스럽게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대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 보아도 그렇고 오늘날의 세계 교회 협의회(The World Council of Churches)를 보아도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조직 안에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진실한 자들을 남겨 두셨습니다. 이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교회들이 남아 있으며 이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나타냅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는 복음과 사역을 육체만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거창한 계획들을 추진하기도 했고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천재성을 발휘하여 교회의 제정과 확장 등의 계획을 잘 짜서 그 힘으로 온 세계에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치려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성령을 좇아 행하고 성령에 충만하며, 오직 교회를 이끄시고 세우시는 성령께 의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등은 있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이 있었다는 심각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밤중에 갑자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났을 때에 비로소 모든 사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때까지는 열 처녀들이 모두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에 그들 사이에 크나큰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그제서야 자기들이 참 빛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들이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왔고,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힙니다. 어리석은 여인들이 돌아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하며 애원했지만 주인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 달란트 비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주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계할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변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앓으리라 하니라”(25:14-30)

이 비유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더 늘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서 더 풍성하게 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것을 단지 보존하기만 하는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각각의 능력에 따라 주어졌지만, 두 달란트를 받아서 또 두 달란트를 남긴 자는 다섯 달란트를 받아서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긴 자와 똑같은 칭찬과 상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즉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우실 때 그 나라에서 우리의 위치는,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것들에 대한 우리의 충성에 따라 결정되리라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맡기셨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것들을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인이 충성스러운 종에게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 하며 다스리게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교회들에게 이긴 자들은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에서의 우리의 위치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에 대하여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것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개개인도 그 맡은 것들을 사용하여 늘려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각자에게 자신의 삶을 심각하게 점검해 볼 것을 촉구합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를 힘써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충성스러운 자인가, 나태하여 맡은 것들을 유익하게 사용하여 더 생산하기는 커녕 현재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는 않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 양과 염소의 비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25:31-33)

예수님이 영광중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때, 제일 먼저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은 대환난에서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를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의 기간 중에 그리스도 앞으로 불러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환난에서 살아남고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것같이 각각 분리할 그 시점에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에서 다니엘은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하고 주께 물었습니다. 주님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일천이백구십 일이 지나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기다려서 일천삼백삼십오 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언급하고 계신 특별한 기간이 아마도 45일간 지속되리라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40은 성경에서 심판의 수입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40주야 동안 비가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은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상 45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는 1335일에서 1290일을 뺀 숫자입니다. 다니엘은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자는 쫓아내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25:34-36)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25:37-40)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마틴 엠투란이라는 사람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군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가 시내로 들어가려는데 누더기를 걸친 한 거지가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는 가진 돈이 없어서 입고 있던 군용 외투를 벗어 반으로 잘라 그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외투였으나 마틴은 기꺼이 그 옷을 거지와 나눠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 날 밤 꿈에 마틴은 주님이 하늘에서 그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중에 계시는 것을 보았는데 주님은 자신이 나눠준 반쪽 짜리 군용 외투를 입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 보답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곤경에 관심을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마음을 단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는 기독교를 실제적인 측면에서 다루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약 2:15-16). 야고보는 믿음을 실제적인 적용의 문제로 다루며 곤경에 처한 자들에 대해 동정심을 가질 것과 실제로 도움의 손을 펼칠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옆집의 누군가가 밥을 굶고 지내는데 어떻게 우리의 몸에 사치품을 장식할 수 있겠습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25:41-46)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이제 다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하십니다. 이들이 곧 ‘염소’로 판별되는 자들로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영벌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을 위하여 지옥(Gehenna)을 예비한 것이 아니고 사단과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은 스스로 사단에게 미혹되어 사단과 함께 지옥에 들어가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실 것이며 또 최선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유일한 대안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단의 반역에 동참한다면, 그는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은 결코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